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16, 해체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포스트 구조주의로 알려진 운동은 성경 해석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접근 방식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낳았거나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의미 결정자로서 독자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 중 하나인 독자 반응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독자 반응 접근 방식조차도 최소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접근 방식을 위한 여지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의미의 발견 또는 생성에 참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모두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접근 방식 중 두 가지, 그 중 하나는 독자가 텍스트에 의해 안내되거나 저자가 이상적인 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텍스트에서 저자가 창조하거나 저자는 독자가 동일시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Stanley Fish와 같은 또 다른 보다 급진적인 독자 반응 접근 방식은 텍스트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데 훨씬 더 광범위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신 텍스트는 독자의 창작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자, 즉 텍스트는 독자가 텍스트에서 가져온 내용을 반영하는 거울처럼 기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 우리 마음의 구조, 우리의 가치관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찾는 것을 반드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접근 방식을 불러일으켰고, 그러한 급진적인 독자 반응은 해체주의 또는 텍스트의 해체적 읽기로 알려진 접근 방식으로 끝나도록 더욱 밀어붙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체주의는 문학계에서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으며, 성서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적 접근이나 철학적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매우 단순한 수준에서 해체주의는 모든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훼손하고 스스로 해체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텍스트는 안정적이지 않으며 텍스트에 안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텍스트는 소통에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을 훼손하고 해체한다. 해체주의에 대한 한 가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체주의는 텍스트에서 상충되는 의미를 생성하고 그 의미를 서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체주의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고 텍스트는 자멸적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말하면, 안정적인 의미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텍스트의 균열이나 균열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의미가 없고, 의미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접근 방식에 따르면 텍스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석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의 가장 유명한 옹호자이자 잘 알려진 옹호자는 1930년부터 2004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철학자 Jacques Derrida였습니다. 그의 이해의 중심에는 표징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과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기호와 그것이 가리키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차이나 격차가 있었고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즉, 그에 따르면 말은 끝없이 의미를 연기한다. 단어는 단순히 다른 단어를 참조할 뿐 결코 따라잡을 수 없고 의미를 포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따라잡지 못하므로 다시 말하지만 안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드러나거나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것은 다양하고 모순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해체주의는 텍스트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데리다의 문제 중 하나는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올바른 의미를 주장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는 권위주의적인 의미를 뒤집습니다. 텍스트는 안정적인 해석적 접근 방식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에 정확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해체주의는 올바른 의미가 없고,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의미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권위주의적 해석을 뒤집는다. 따라서 데리다에게 의미는 항상

불안정한 것이었고, 의미는 끝없이 연기되었으며,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데리다 자신은 해체주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의 해석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데리다가 다시 대답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초월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센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체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신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은 없습니다. 초월자는 없습니다.

중심도 없고 의미를 붙잡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초월적인 형이상학적 진리나 중심이 없다면 데리다에 따르면 텍스트에는 끝없는 유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의미는 우리를 탈출합니다.

데리다가 항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특히 다른 철학자와 비평가들에게 그는 해석학과 성경 해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개인,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본문에 대한 해체적 접근 방식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개인 중 한 사람인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라는 신약 학자는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의 드류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셰필드 대학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무어는 데리다와 해체주의를 다룬 책과 기사, 출판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더 문학적인 측면에서 시작하여 더 많은 독자 반응으로 나아갔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해석에 대한 더 해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판물은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접근 방식을 성경 본문에
 적용하려는 그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Poststructural Perspective 의
 Mark와 Luke 와 그의 저서 중 또 다른 책인 신약 성서의 Poststructuralism,
 Derrida와 Foucault at the Foot of the Cros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에서 성경 본문, 때로는 영어까지도 해체주의와 일치하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도 조작되고 해체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하므로 남은
 것은 모두 가지고 노는 것뿐입니다. 텍스트. 해체론을 논의하거나 다루는 해석학
 텍스트에서 자주 언급되는 고전적인 예 중 하나는 성경 텍스트에 해체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의 유명한 예 중 하나는 그가
 마가복음에 해체를 적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발췌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이러한 유형의 접근 방식의 예시로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티븐 무어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
 그는 마가 신학을 흔히 십자가 신학,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신학이라고 말한다.

마가복음에서 제자의 서명은 십자형 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서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사전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십자가 표시의 형태로 정의합니다.
 특히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 그의 이름에 서명할 때 만든 서명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반대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제자들이 특이하게도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리둥절한 제자들에게 반대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8장 33절, 8장 17~21절 참조.

십자가는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텍스트를 가지고 놀면서 단어 연관, 심지어 영어 단어 연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가의 의도나 안정적인 정확한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모든 종류의 연결을 그려내고 텍스트를 가지고 자유롭게 유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차(chiasmus)이기도 하며, 첫 번째 경우에 확립된 질서, 즉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이 두 번째 경우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교차 융합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마가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다. 십자가나 교차점처럼 구조화된 허구.

다시 말하지만, 내 의도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독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키아스무스(Chiasmus)는 그리스어 chiadzeme 에서 유래했는데 , 이는 문자 x로 표시하고 ki라고 발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ki는 인칭 대명사 I를 뜻하는 독일어인 ich의 철자법입니다. 프로이트에서 영어 번역가들이 ego로 번역한 기술 용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내가 있다 또는 나다라는 그리스어인 ego eimi 라는 단어로 자신을 밝히신 예수님은 프랑스어 je suis, I am의 메아리인 이름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단일 문자는 I 또는 자아이므로 삭제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자아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 14장 36절.

표시를 받는 것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 표시인 x를 표시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chiadzeme 의 경우 자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Chiasma의 또 다른 의미는 나무 조각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몸부림치시거나 글을 쓰시는 교차점은 책상이면서 동시에 강연대이기도 합니다. 임종하면서 그는 시편 22편을 펴고 첫 구절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읽습니다.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인 chi는 그리스 알파벳의 22번째 글자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과 비슷합니다.

그럼 무어가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이상하고, 이상하고,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해체적인 접근 방식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텍스트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표지판은 끝없이 다른 표지판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가져와 온갖 종류의 이상한 연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자가 의도했거나 텍스트에서 발견된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포착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티븐 무어는 데리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 포스트구조적이고 해체적인 접근 방식 대신에 해체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읽습니다. 몇 가지 다른 예를 들자면, 성경 본문 해석에 해체적 방법이나 해체주의를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구약 학자 중 한 명은 David DJ Clines입니다. 해체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여러 기사를 쓴 사람입니다.

그 중 하나가 욥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욥기를 읽을 때 그가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욥을 입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텍스트가 어떻게 스스로 바뀌고 해체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기에서 욥의 정당성을 입증하신다. 그러나 욥은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셨거나 벌을 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욱을 옹호하고 지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욱을 대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욱기의 본문은 그 자체를 배반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켜집니다. 그것은 해체됩니다.

몇 가지 다른 예를 들자면, 신약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 때때로 해체적인 방법을 적용한 유명한 학자 중 한 명은 John Dominic Crossan입니다. 그는 예수 세미나에서 맡은 역할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역사적 예수에 관해 결론을 내린 몇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John Dominic Crossan은 비유에 관해 꽤 많은 글을 썼습니다. 종종 그것들을 해석하고 해체적인 유형의 접근 방식으로 읽는다.

예를 들어, 제가 접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우연히 접하고 읽었습니다. 밭에 있는 보화의 비유를 그가 다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 중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밭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보물을 발견하고 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밭을 사서 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존 도미니크 크로산(John Dominic Crossan)은 이것을 왕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면 이 비유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버림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는 Dominic Crossan 자신이 말했듯이 단순히 자유로운 플레이에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종종 해체적 유형 접근의 대상이 되어온 또 다른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흥미롭게도 계시록의 방식은 종종 해체주의적 접근 방식에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안정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다.

책이 상충되는 의미를 생성한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 켜집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모순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로마의 폭력과 무력 사용을 정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를 짐승으로 묘사하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을 유혈사태와 무력에 기초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죽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로마를 정죄하고 제국의 폭력과 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로마에 대한 요한의 정죄는 사실상 그의 책을 훼손시킨다. 요한만이 로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폭력과 강압으로 로마를 징벌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봉인과 재앙의 형태로. 다양한 재앙. 인장과 황소와 나팔.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악인을 불못에 던지시는 곳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해체적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요한은 로마의 폭력과 무력 사용을 비난합니다. 요한의 메시지 책은 그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이 정죄한 것과 동일한 폭력과 힘으로 로마를 처벌하실 때 그것은 해체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로마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로마가 비난을 받고 처벌을 받듯이.

더욱이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여 악을 멸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악을 이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그러한 용어로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계시록에 안정된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해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상충되는 의미를 생성합니다. 텍스트가 무너지고 텍스트 자체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성서 해석에 대한 해체적 접근 방식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제 생각에는 해체적인 접근 방식은 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상충됩니다.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해합니다. 해체적인 접근 방식은 궁극적으로 신과 충돌합니다.

그는 성경 본문에 자신의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접근 방식은 안정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접근 방식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는 단순히 상충되는 해석과 상충되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서로 대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안정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해석의 기반이 되고 근거가 되는 형이상학적인 진리나 현실, 의미는 없습니다. 둘째, 해체해야 한다. 해체적 접근 방식은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바와 같습니다. 적어도 일부 작가는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에게서 읽은 예는 예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작가들은 이해하기 위해 다시 글을 씁니다. 그리고 해체주의에 대한 이해를 전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침내 다시. 분명히 파괴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주관성과 상대주의는 본문에서 발견되는 내용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읽거나 해석의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은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좋은 독서와 나쁜 독서가 있습니다. 맞는 해석도 있고 틀린 해석도 있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좋은 또는 더 나은 읽기와 해석이 있습니까?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체주의에서는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해체주의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언급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해체주의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해석이 영성하거나 지저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항상 간단한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을 귀납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순수하고 객관적인 의미를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체주의는 우리에게 해석의 난잡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본다. 나는 인간의 죄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미의 본질적인 불안정성보다는.

그리고 안정된 의미나 형이상학적인 현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신 자신의 존재. 두 번째는 때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는 해체주의입니다.

텍스트의 긴장감을 너무 빨리 설명하지 마십시오. 본문에 반대나 긴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해체주의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너무 빨리 얼버무리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해체주의를 생각합니다. 독자의 반응 접근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검손을 불러일으키는 기능. 우리가 가정을 가져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본문에 대한 우리의 전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배경에서 읽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통역이 항상 쉽고 간단한 과정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체주의는 우리가 겸손하게 본문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역사에게 겸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역사의 한계를 깨닫는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 접근할 때. 우리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몇 가지 이념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시 포스트 구조주의 또는 해체주의. 아마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사후 구조적 접근 방식. 종종 복음주의 해석에 가장 잘 따르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사소통으로 본다.

의미를 근거로 삼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 해석. 안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우리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어두운 창문이라도. 아직 창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실재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종종 해체주의가 발생합니다.

또는 해석학에 대한 해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수용하기 어렵고 가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적어도 복음주의 해석에 대해서는.

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포스트 구조주의 또는 포스트 모던 접근 방식. 요약을 위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흔히 해석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접근 방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포스트 모던 접근 방식. 소수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몇 가지 특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스트모던적 접근방식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포스트모던 해석이라고 자주 듣는 것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정확한 해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텍스트. 텍스트의 올바른 해석을 옹호합니다. 포스트 모던 접근 방식.

권력을 다시 확립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평한 경기장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해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독서와 모든 해석은 동등하게 유효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두 번째 것.

우리의 해석이 이전 가정에 의해 채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위치. 우리가 본문에 가져오는 것.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귀납적인 방식으로 본문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대신에 다시 우리의 사회적 위치.

우리가 본문에 가져오는 가정. 우리의 가치 등. 우리의 전통은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찾는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스트 모던 접근 방식에 따르면. 다시 메타 내러티브가 없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대신 모든 이야기.

모든 이야기는 동등하게 유효합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포스트 구조주의와 유사하다.

그리고 파괴적인 접근 방식. 안정적이고 명확한 의미가 없다고 제안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인정 거부를 옹호한다.

아무거나 올바른 의미입니다. 아니면 본문에 어떤 명확한 의미가 있나요?

작성자도 거기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포스트모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본질적으로 어렵지만.

다원적 해석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나 안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에게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으로 보는 사람.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계시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이해하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던이 다시 한번 접근한다. 기독교 독자와 통역사를 위해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겸손을 키우기 위해.

겸손하게 본문에 다가가겠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두번째. 다시 포스트 모던 접근 방식.

우리가 본문에 가져온 내용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한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자 반응 비평에서 보았듯이. 듣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듣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텍스트에 대한 다른 관점. 그리고 그러한 관점이 텍스트와 일치할 때.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해석학적 근시. 아니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우리 자신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유형의 접근 방식의 또 다른 측면.

아니면 해석학이 사라진 곳.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이념적 접근 방식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특정 이념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면에 있는 가정은 이것이다.

그 텍스트는 이념적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데올로기적이다. 그 점에서 그들은 신념과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특정 문화와 위치에 있는 작가의 가정.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는 실제로 결과입니다. 정말 이념적이네요.

그것은 작가가 문화 속에서 투쟁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따라서 텍스트는 반드시 값을 반영합니다. 관심사. 그리고 저자의 신념과 가정.

따라서 텍스트에 대한 이념적 접근 방식은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첫번째. 그들은 텍스트의 이념적 관점을 밝히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저자. 이는 텍스트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식은 역사적 접근 방식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쓴이의 상황과 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의 사회적 위치. 하지만 그것이 하는 일.

시도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한.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는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저자는 그러한 관점에서 독자를 형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더 나아가 독자가 텍스트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평에 참여하고 이를 경험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념적 관점을 드러낸다. 가치.

텍스트의 가정. 저자의 신념. 그러나 더 나아가 특정 다른 관점이 침묵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아니면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묻습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보입니다.

종종 이념적 비판은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자신의 이념적 관점을 독자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려고 했는지 살펴본다.

다른 관점이 어떻게 침묵했는지 살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관점을 비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화에 대한 현대 독자의 가치, 관심 및 관심을 고려하여 작성됩니다.

흔히 페미니즘적 접근법으로 알려진 것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면 페미니스트 비판. 그리고 해석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

성경 본문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 또는 페미니즘적 비판. 어떤 면에서는 성경 본문을 읽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성을 향한 억압적인 태도를 다시 한 번 드러낸다.

다시 가정합니다. 때로는 텍스트에 대한 전통적인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식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성경 본문이 종종 매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생산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남성이 지배하는 문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를 읽습니다. 그러나 그 이념적 관점을 폭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억압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고 침묵하게 만드는가. 따라서 여성을 해방시키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향해. 그래서 그것은 텍스트 밖의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해방의 필요성.

억압의 느낌. 여성의 억압과 배제의 경험. 그리고 억압의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는다.

그리고 여성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예전의 해방신학과 비슷합니다.

또는 텍스트의 해방 독서. 그래서 텍스트의 이념적 한계를 비판한다. 다시 한번 이데올로기의 불법적인 사용을 폭로하려고 시도합니다.

권력의 불법적인 사용. 그리고 특정 관점이 침묵되는 지점을 주목하려고 시도합니다. 텍스트가 여성과 같은 특정 독자에게 억압적인 부분을 지적합니다.

구약성서의 유명한 페미니스트 해석자 중 한 사람. 특히 신약성서. 하버드 학자입니다.

하버드 교수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 독일 학자입니다. 특히 신약성경을 다시 읽는 사람.

여성 혹은 여성들의 억압과 배제의 경험에 비추어. 그리고 해방을 위한 그들의 투쟁. 그래서 Fiorenza는 기준에 맞는 텍스트를 읽습니다.

자의식적으로 카논이나 기준에 호소합니다. 성경 자체 외부. 그것이 바로 억압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의 필요성. 그리고 다시 그녀는 성경의 구조가 가부장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비판하는 독서에 참여합니다.

그 관점은 그것이 얼마나 억압적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성 독자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읽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페미니즘적인 접근 방식도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접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부드러워지는 것과는 반대로 . 더 나은 단어가 부족합니다.

텍스트에 대한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 후자는 해석에 있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에게도요.

성경 본문 해석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접근 방식의 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발견됩니다. 그리고 특히 한 학자는 다른 어떤 학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성서 본문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독서나 페미니즘적 독서를 옹호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티나 피핀(Tina Pippin)이라는 신약학자입니다. 티나 피핀(Tina Pippin)은 요한계시록에 관해 꽤 많은 글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은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임을 옹호합니다. 여성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일은 본문으로 가서 여성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기록합니다. 여자가 대우받는 방법.

특히 책의 상징적 비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여성, 즉 여성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주목합니다. 사실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곱 메시지나 일곱 편지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하십시오. 여성을 대하는 방법. 예를 들어, 내가 찾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저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장 22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메시지 중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세벨은 아마도 그녀의 진짜 이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그녀에게 부여한 구약 성서의 이름.

단순히 그녀를 특성화하기 위해. 그리고 그는 이세벨이 이것을 가르쳐서 내 종들을 성적 부도덕에 빠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나는 그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회개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22절.

그래서 나는 그녀를 고통의 침상에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에게도 심한 고통을 주겠다. 그들이 그들의 길을 회개하지 않는 한.

그러니 Tina Pippin이 이 글을 읽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세요. 이 책에서 여성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세요. 그녀는 단순히 매춘부 취급을 받습니다.

침대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자체의 환상에는 피핀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또한 여성에 대한 다른 언급에도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12장에서 요한은 한 여자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의 별들로 장식된 분. 그리고 그녀는 임신 중이어서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여성의 주된 역할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게다가 이야기가 계속되면. 나중에 이야기에서 .6절. 아들을 낳은 후.

용. 이 드래곤. 비전의 다른 부분.

용은 여자를 쫓는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자는 소외되고 고립된다.

그녀는 일종의 사막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어떤 역할도 하지 않기 위해 강제로 사막에 갇혔습니다. 17장.

다시 17장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목하십시오. 아마도 로마라는 도시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17장에서는 창녀인 여자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여자가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매춘부입니다. 남성이 학대하고 이용함. 그리고 실제로 17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네, 17장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주목하세요. 그것은 말한다.

짐승.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6절에서.

네가 본 그 짐승과 열뿔. 17장의 환상 앞부분에서. 네가 본 짐승과 열 뿔이 음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자를 파멸시키고 벌거벗긴 채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울 것이다. 그래서 Pippin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이 책은 여성에게 안전한 책은 아닙니다. 여성은 소외됩니다.

그들은 매춘부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남성의 피해자입니다.

매춘까지 성적. 그들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구타당했습니다.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새 예루살렘은 여자에 비유됩니다. 여자.

하지만 또. 피핀은 그녀에게 들어오는 나라 들의 언어를 받아들인다 . 오히려 말 그대로.

그녀에게 성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매춘부입니다.

남성들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사막으로 추방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도요.

그녀는 남성 섹슈얼리티의 대상입니다. 티나 피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그것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성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본다.

좀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은 읽는 것입니다. 다시 여성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에 접근합니다. 텍스트를 읽는 방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텍스트 자체와 더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독서 하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죠.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두어 번 다루었습니다.

본문의 배경과 관련하여. 사마리아인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만난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의 배경과 역사.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러나 예수님이 여자를 만난 것도 흥미롭습니다 . 그리고 요한 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여인과 나누신 대화와 약혼을 읽을 때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 여인에게 질문하고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 남편에게 전화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지 않은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 중 5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자는 매우 부도덕한 여자입니까? 아마도 그녀는 매춘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도덕해요.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누구와도 동거를 한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함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한 남편에서 다른 남편으로 점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부정적인 용어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는 법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러나 흥미롭게도.

내가 읽은 이 텍스트에 대한 몇 가지 접근 방식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더 민감합니다. 아니면 여성적인 접근 방식.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내용을 모두 잘못 읽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이 여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매춘부도 아니고 방종한 여자도 아니다. 아니면 단순히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잔다. 이 여자가 피해자라면 어떨까요? 남편이 그녀를 떠났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시대에. 남편에게 집착하지 말라.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가 다섯 번의 결혼을 했다는 사실 도요 .
그녀의 잘못만은 아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를 떠난 것은 남자들이거나 남편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재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편에게 자신을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지만. 그녀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성적인 모습에 자신을 집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더 나은 용어가 없기 때문에 더 부드럽습니다. 페미니즘적 또는 이념적 접근.

텍스트나 관점에 대한 통찰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 자신의 접근 방식에서 사각지대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텍스트 자체와 더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종종 이념적 접근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자주 할 수 있습니까?

자신만의 해석으로 사각지대를 밝혀보세요. 때로는 이념적 접근 방식이 관점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텍스트 자체에 더 가깝습니다.

여성적인 접근과 같은. 그러나 다시 한 번 이념적 접근의 입장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 본문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뿐입니다.

텍스트의 이념을 버리지 않고. 아니면 본문의 신학. 우리의 이념적 관점을 비판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우리의 접근 방식.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우리를 끝까지 가져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구조 이후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십시오.

특히 독자 중심의 응답. 성경 본문에 대한 독자 중심의 접근 방식. 요약하자면 우리는 해석학과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종의 논리적으로, 심지어 역사적으로도 움직였습니다. 의사소통의 세 가지 주요 단계를 통해. 그것은 작가가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이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텍스트 중심 또는 작성자 중심 접근 방식을 보았습니다. 역사적 비판적 접근방식에 속합니다.

텍스트 뒤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의미를 살펴보세요. 텍스트 이면의 의미와 해석학적 활동을 찾아내는 접근 방식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은 것.

본문에 언급된 역사적 특징.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아보세요. 출처에 근거한 비평과 같은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텍스트 뒤에 있는 출처에 초점을 맞춘 편집 비평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작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작가 중심으로 그 초점에 접근합니다.

텍스트를 생산하는 작가에게 초점을 맞춘 작가의도 . 그리고 의미의 결정자는 작가의 의도이다. 우리는 저자 중심 접근 방식에 내재된 몇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를 확인했습니다.

해석은 논리적, 역사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독점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으로 이동했습니다. 텍스트 자체가 의미의 초점이었던 곳.

그래서 형식주의에 뿌리를 둔 다양한 문학적 접근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서사적 비판. 구조주의와 같은 것.

텍스트의 표면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심층 구조. 그리고 야당 같은 것들을 보면요.

그리고 행위자와 내러티브의 기능. 텍스트 전체에 초점을 맞춘 수사학적 비평적 접근 방식입니다. 전체 텍스트에 초점을 맞춘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 중 일부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발생합니다 . 그리고 안정적인 의미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의미를 제공합니다. 해석은 보다 독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구조적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자 반응 비평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독자가 텍스트에서 의미를 발견하거나 심지어 생성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객관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텍스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텍스트를 이해합니다. 텍스트를 일종의 거울로 보는 훨씬 더 극단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것은 단지 독자의 성향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독자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독자가 속한 커뮤니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상으로 해체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텍스트의 안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텍스트는 스스로 해체됩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상충되는 의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모순되고 모순되는 해석.

결과와 목표는 단순히 텍스트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끝없는 무료 플레이. 끝없는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념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일반적으로 보는 방법. 이념적 세력의 측면에서.

저자의 이념적 관점. 그리고 그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는 그걸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특정 독자에게는 억압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관심을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 방법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 속하는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입니다. 더 많은 독자와 역사적.

또는 텍스트를 중앙에 배치합니다. 작가님과 역사님 죄송합니다. 텍스트 중심 또는 독자 중심.

다양한 방법과 접근법을 살펴보세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해석학 교과서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해석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회학적 비판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간단히 요약해 보세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또한 약점과 강점을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해석학과 성경 본문 해석에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지.